

-아/어지다

~해지다 — 상태의 변화

형용사를 변화의 의미로 바꿉니다. 형용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낸다면, 이 형태는 그 상태로 되어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아지다	좋다 → 좋아지다
그 밖의 모음	-어지다	예쁘다 → 예뻐지다
하다 형용사	해지다	건강하다 → 건강해지다
축약	-아요/어요와 같음	크다 → 커지다
띄어쓰기	한 단어	좋아지다 — 좋아 지다 (×)
동사에는	-게 되다	가게 되다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규칙을 따르며 축약도 똑같이 일어납니다: 좋아지다, 예뻐지다, 커지다. 하다 형용사는 해지다가 됩니다: 건강해지다, 조용해지다.

맞춤법에 주의하십시오. 지다는 형용사에 붙여 띄어 쓰지 않습니다. 좋아지다는 틀린 표기입니다.

변화는 대개 서서히 일어나므로 날씨, 건강, 실력, 감정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씁니다: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

일부 동사에 붙으면 피동에 가까운 뜻이 됩니다: 만들어지다(만들어지다), 커지다(커지다), 알려지다(알려지다). 이는 일반 규칙이 아니라 정해진 단어들이므로 하나씩 익혀야 합니다.

■ 예문

- 1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
- 2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해졌어요.
- 3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.
- 4 저녁이 되니까 조용해졌어요.
- 5 이 빵은 매일 아침에 만들어져요.
- 6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

■ 비교

-게 되다
두 형태는 품사로 나뉩니다. 형용사에는 -아/어지다, 동사에는 -게 되다를 씁니다. 둘 다 변화를 나타내지만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.

추워졌어요. (날씨가 더 추워졌다) / 가게 됐어요. (가게 되었다)

형용사 기본형
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고, -아/어지다는 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냅니다. 기본형을 쓰면 시간에 따른 변화의 뜻이 사라집니다.

날씨가 따뜻해요. (따뜻하다) /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 (따뜻해졌다)

되다
되다는 단독으로 명사에 붙고(의사가 되다), -아/어지다는 형용사에 붙습니다. 둘 다 ‘변화’를 나타내지만 붙는 품사가 다릅니다.

의사가 됐어요. (의사가 되었다) / 유명해졌어요. (유명해졌다)

■ 주의

- ✗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.
-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.
- 지다는 바로 붙여 한 단어로 씁니다. 띄어 쓰는 것은 흔한 맞춤법 오류입니다.
- ✗ 운동해서 건강하어졌어요.
- 운동해서 건강해졌어요.
-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해요와 같은 규칙으로 해지다가 됩니다.
- ✗ 한국에서 일해지게 됐어요.
-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.
- 일하다는 동사이므로 -게 되다만 씁니다. 두 변화 표현을 겹쳐 쓰지 마십시오.